제60호 2018년 5월 2일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2018년 1분기 러시아 철도운송 컨테이너 처리량, 약 100만 TEU
- 전문가 칼럼
  - 대러 제재에 따른 북러 무역 변화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Maersk, 네덜란드 - 러시아 항로에 아이스클래스 선박 추가 투입
  - 러시아 SBI Bank, R3사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가
  - 러시아 전문가검토위원회에서 즈베즈다(Zvezda)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
  - '프리모리예-2'를 통한 일-중 간 화물운송경로 연결
  - 러 연해주, 제4차 동방경제포럼 준비 한창
  - 올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 '북한상품관' 개설 예정
- 주요 통계
  - 2018년 1~2월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품목
- 별첨 : 제8차 한-러 극동포럼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총괄: 박성준 러시아센터장 △감수: 길광수 명예연구위원 △
tel:+82-51-797-4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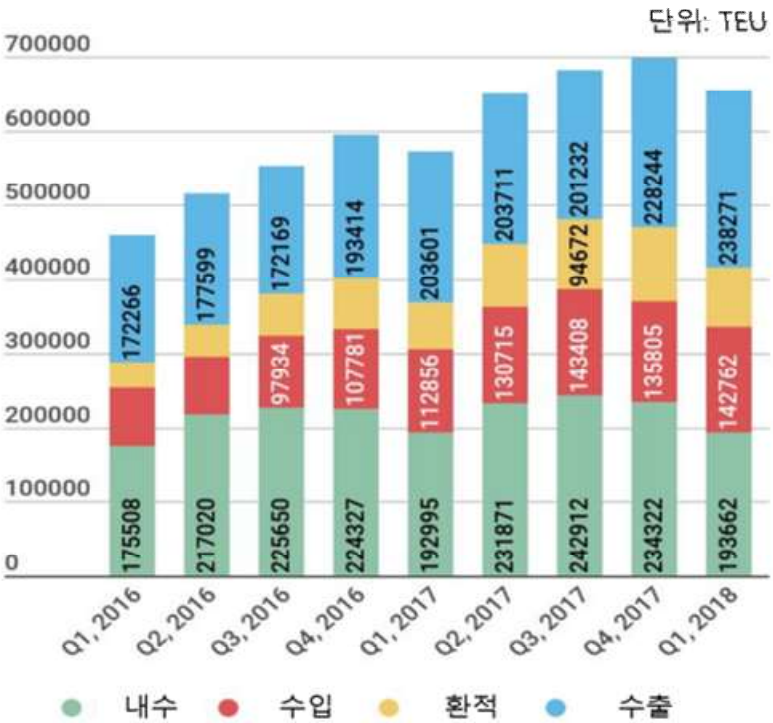
통계로 본 이슈

2018년 1분기 러시아 철도운송 컨테이너 처리량, 약 100만 TEU

▪ 2018년 1분기(1월~3월) 러시아 철도 운송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하여 총 99만 6,000 TEU를 기록했음

- 수출 컨테이너는 23만8,270 TEU(+17%), 내수용 컨테이너는 19만3,660 TEU (+0.3%), 수입 컨테이너는 14만2,760 TEU(+26.5%), 환적 컨테이너는 7만9,870 TEU (+26.7%)를 기록했음

철도운송 컨테이너 처리량 추세



자료: http://infranews.ru/(검색일: 2018년 4월 26일)

▪ 전년 동기대비 적재된 컨테이너 처리량 또한 14.3% 증가하여 65만4,570 TEU를 기록했음

- 2017년 1분기 적재된 컨테이너는 57만2,490 TEU, 공 컨테이너는 31만8,230 TEU로, 2018년 1분기 적재된 컨테이너는 65만4,570 TEU(전년 동기 대비 +14.3%), 공 컨테이너는 34만1,490 TEU(전년 동기 대비 +7.3%)를 기록함

2017년 1분기/2018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 비교 (단위:천 TEU)

구분	2017	2018	2017/2018, %	비율, %
적재 컨테이너	**572.49**	**654.57**	**14.3**	**65.7**
수출	203.6	238.27	17.0	36.4
내수	193	193.66	0.3	29.6
수입	112.86	142.76	26.5	21.8
환적	63.04	79.87	26.7	12.2
공 컨테이너	**318.23**	**341.49**	**7.3**	**34.3**
수출	222.66	233.2	4.7	68.3
내수	49.88	54.54	9.3	16.0
수입	30.01	35.12	13.3	10.3
환적	14.68	18.63	26.9	5.5
합계	**890.71**	**996.06**	**11.8**	**100**

자료: http://infranews.ru/(검색일: 2018년 4월 26일)

참고자료 :

http://infranews.ru/logistika/containeri/51355-kontejnernyj-otchet-za-1-kv-2018-goda-ch-2/ (검색일: 2018년 4월 26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전문가 칼럼

대러 제재에 따른 북러 무역 변화

안드레이 코브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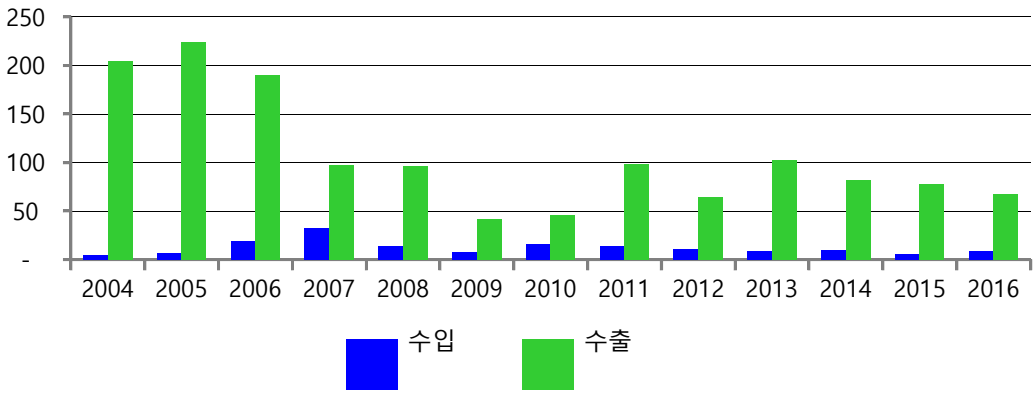
2014년부터 있었던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제13660호, 제13661호, 제13662호 및 제13685호에 의한 제제는 러시아와 서구 열강간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러시아를 동방으로 향하게 했다. 공식적으로 “동방 정책”(Pivot to East)으로 명명된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명백한 적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및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소원해지도록 한 제재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동방 정책은 사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른바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꽤나 오래된 노력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연결자”(connector)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시아는 또한 스스로 그런 연결자를 원하는가? 앞서 언급한 것과 별개로, 러시아는 확실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데 대한 억지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여전히 궁극적으로는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한다.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최소한의 지정학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단순한 상대 그 이상이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변함없는 우방국이다. 동남아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런저런 세세한 일을 함께 하기에는 복잡다단한 지역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우가 다르며, 동 지역에서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공식 국가이데올로기인 “주체”에 의한 자위력 차원에서 선언한 핵국가(Nuclear Power)인 북한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북아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 짧은 소고에서 필자는 2014년 미국의 대러 제재,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러시아 루블화의 하락에서 초래된 경제적·재정적 위기 압력 하에서 특히 무역 이슈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러북 양자 무역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상기의 기간, 비록 러시아

의 헌법상 지역구분은 아니지만 러 연방정부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러시아의 8개 관구 통관당국 통계 및 통관 관련 자료를 사용했다. 필자는 올해 4월 경재개발부로 인계된 러시아 연방 국가통계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동 서비스의 데이터는 많은 세목과 수치들을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러 수출입 총액 변화(2004~2016)



러시아의 대북 수입액은 대북 수출액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최소 수년간 수입 총액의 상당 부분을 몇몇 품목군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의 대북 수입총액 중 절반 이상은 크게 세 품목군이 차지했다. 즉 기계, 기계장비, 핵반응로, 보일러 및 그 부품을 뜻하는 HS코드 84, 전자기계장비 및 그 부품, 녹음기와 재생기, 텔레비전 모니터 및 관련 부품 및 부속품 등의 HS코드 85, 그리고 플라스틱과 관련 제품인 HS코드 39이다. 한편 해당 12년 동안(2004~2012) 러시아의 대북 수입총액은 2007년 가장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조짐을 보였다. 예상대로 2008년 러시아의 대북 수입총액은 59%까지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는데 이는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며, 2009년 러시아의 대북 수입총액은 200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앞서 언급한 3개 품목군은 수출총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품목 주종을 차지했으며, 이는 이들 3개 품목군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구조에서 매우 견고한 위치를 차지함을 반영한다.

2010년 러시아의 대북 수입총액은 120% 증가했는데, 이는 그 이전의 바닥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수입총액의 실질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년간 3대 품목군에 의해 지배되어왔던 품목군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2010년 우리는 소금, 유황, 토석류, 석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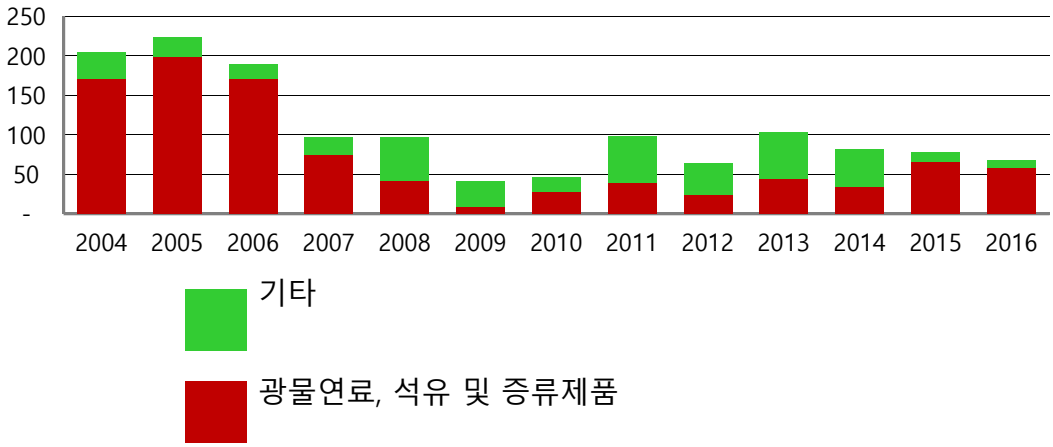
류, 석회 및 시멘트 등 2004년 이래 동 기간 수입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없었던 HS 코드 25의 새 품목군을 발견할 수 있다. 2009년 동 품목군의 수입총액은 29%를 차지했다. 2011년 이후, 과거 "주요" 품목군이었던 기계류 등 HS코드 84 및 전기기계장비류 등 HS코드 85는 러시아의 전체 대북 수입액의 불과 16%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품목군에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대북 수입품목은 중공업에서 경공업 제품으로 변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의류 및 편직·뜨게질류를 제외한 의류 악세서리 등 HS코드 62의 품목군이 기계류 등 HS코드 84 및 전기기계류장비 등 HS코드 85 등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수입 주요품목을 대체하여 새로운 수입 주요품목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는 중공업 분야 수입에서 경공업 분야 수입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대러 제재의 효과는 2015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수입총액을 기록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에도 40.7%가 감소했다. 의류 및 의류 악세서리(HS코드 62)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동물(HS코드 03)과 더불어 2015년의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목으로서, 두 품목군을 합친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58%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그 이전 수년간 수입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HS코드 62의 품목군이 철도 및 철도차량 이외 운송수단, 그 부품 및 부속품(HS코드 87) 및 어류 등 HS코드 03의 뒤를 이어 14%의 비중으로 3위로 밀려났다. 3개 품목군이 전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였으며, 전기기계장비류 등 HS코드 85의 총수입액 비중은 10%로서 2004~2016년 기간 러시아의 대북 수입총액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주요 품목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총액 중 광물연료, 석유 및 증류제품의 비중(2004~2006)



한편, 2004~2007년 기간 러시아의 대북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연료, 석유 및 그 증류제품(HS코드 27)으로서, 기타 품목군은 각각 총수출액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8년 이후 대북 수출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광물성 연료 및 석유와 그 증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2009년 러시아의 대북 수출총액은 2004~2016년 기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반영했다. 동년 모든 품목군은 광물성 연료, 석유 및 그 증류제품,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출총액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목은 단연 에너지 자원

2011~2014년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거의 유일한 품목군의 수출지배 구조에서 전환했다. 그러나 2014년의 대러 국제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무역에 명백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2015년에는 이와 같은 제재가 북러 무역에 분명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러시아의 대북 수출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5.3%가 감소했으며, 한편으로 일반적인 수출품목군 구조도 강력하게 영향받았다. 광물성 연료, 석유 및 그 중류제품,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등 품목군은 수출총액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최대의 대북 수출 품목군이었다. 그러나 수출 구조는 대러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상당하게 변화했다. 수출총액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수출품목의 다각화는 하나의 지배적인 품목군 비율을 더욱 높여 2015~16년 각각 84%, 85%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의 대북 수출구조는 광물성 연료 등의 품목군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각화되었으며, 2015년 그 구조는 수출다각화 및 기계류, 기계 및 전자기계장치, 차량 등에 의한 다

각화 대신, 2004~2007년의 에너지 공급 지배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따라서 오늘날은 특히 광물성 연료, 석유 및 그 증류제품,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등 HS코드 27 품목군이 대북 수출의 주요 품목군이며, 당분간 이와 같은 상황이 변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 칼럼(영어원문)

Russia - DPRK bilateral trade overview

Andrey Kovsh, Associate Professor,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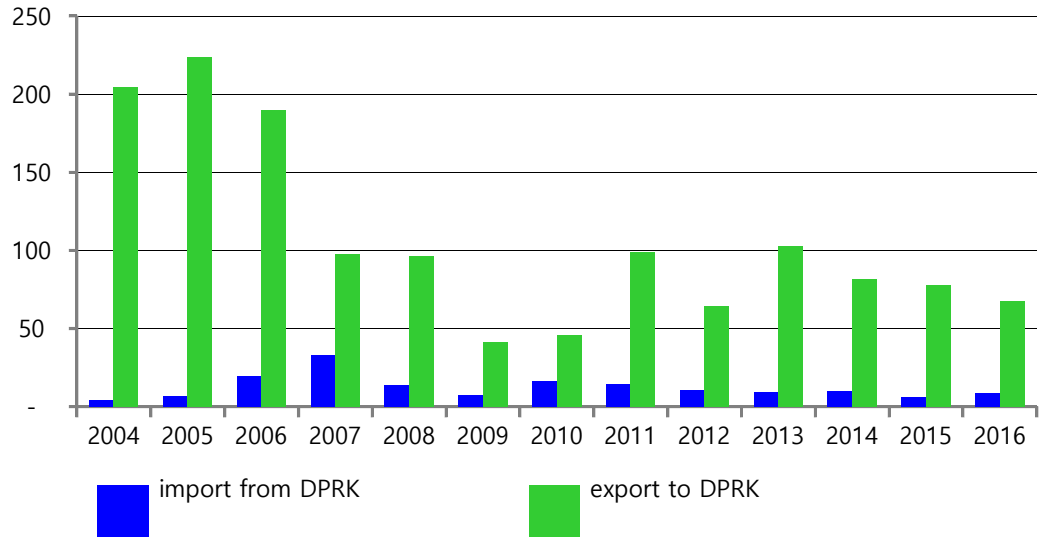
Sanctions imposed by the US Government Executive Orders 13660, 13661, 13662 and 13685 from 2014 significantly affected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Western Powers pushed Russia toward the East. This shift publically labeled as "pivot to the East" was just an attempt to find a way from the trap of sanctions in the situation if not a clear confrontation but definitely cooling down relations with the US and Western Powers. Still the idea is really pretty old as an effort to obtain status of so-called "Eurasian power" connecting Europe and Asia. But could Russia really play the role of "connector" such as it would like to claim to be? And does Asia by itself need the one? Besides the above-mentioned idea Russia is definitely seeking any kind and possibility for deterrence of the US and its allies influence in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China still the last one is

spreading influence over the region. Looking at the map it's easy to understand that the simplest way for Russia to create a kind of at least a weak geopolitical balance in the region is to maintain relations with the DPRK. China is more than a match. Japan and South Korea historically are constant friends of the US. The South-East Asia is too remote, complicated and too dynamic region to play some hankey pankey with. But the North Korea is the different case and looks like a best choice to provide policy in the region. Nuclear power that clearly proclaimed self-reliance as the official state ideology Juche appears as only one state in the North-East Asia that Russia can really influence on.

In this short overview paper we try to present findings of the profound analysis of th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with the special attention to the trade issues after imposition of the US sanctions in 2014 and under the pressure of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resulted in the devaluation of the Russian national currency (ruble) beginning in the second half of 2014. We used statistical and customs data for above-mentioned period from Customs Agencies of 8 federal districts of Russia that although are not the constituent units of the country but exist for the operation of main federal government agencies. We don't use the data from the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that was transferred this April under control of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s data from this Service doesn't reflect the whole picture due to a lot of missing details and numbers.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VS the total value of export to the DPRK from the Russian Federation, 2004-2016

(thousand US Dollars)



The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is very low in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export to the DPRK from Russia still we can indicate several commodity groups that has occupied the significant share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at least for several years in a row.

In 2004-2007 there have been three commodity groups occupied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that are machinery, mechanical appliances, nuclear reactors, boilers; parts thereof (HS Code 84),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HS Code 85) and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HS Code 39). Still in 2007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was the highest throughout observing period of 12 years, however there were signs of slowing down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dynamics. As expected in 2008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experienced sharp decline by 59% that reflects the consequ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7-2008 and in 2009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came back to the levels of 2005. The same three commodity groups mentioned before continued to dominate in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in spite of decline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that reflects solid positions of these 3 groups in the

import structure.

In 2010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rose up by 120% that not only reflects the low base effect but also shows real increasing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because of some signals of shifting in commodity groups structure that was dominated by three commodity groups for several years. In 2010 one can see the new commodity group - salt; sulphur; earths and stone; plastering materials, lime and cement (HS Code 25) that never before occupied a significant share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before in reviewed period since 2004, but in 2009 took 29% of export value. Since 2011 the slow shift in commodity groups have taken place, two "main" commodity groups (machinery, mechanical appliances, nuclear reactors, boilers; parts thereof (HS Code 84),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HS Code 85) occupied together only 16% of import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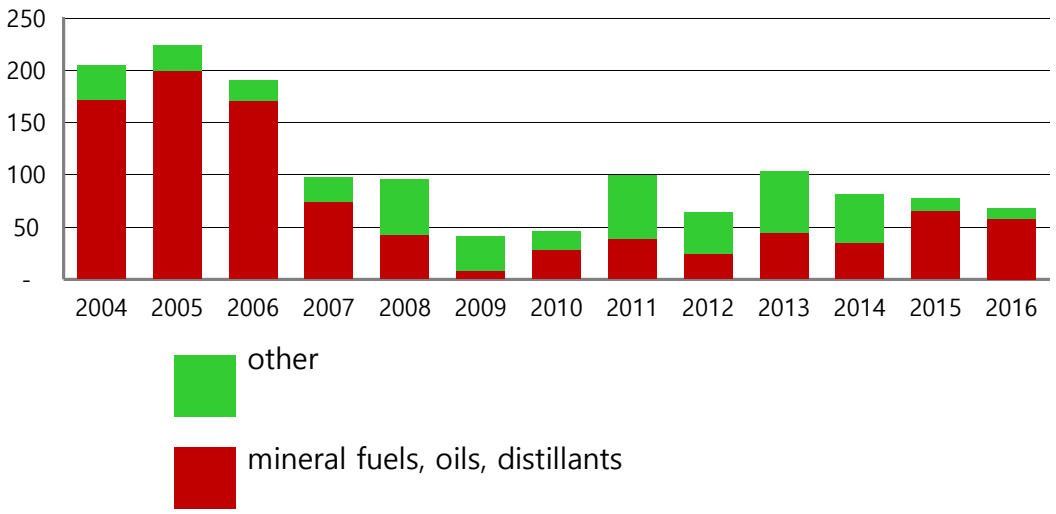
Starting from 2012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HS Code 62) became the main commodity group impor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from the DPRK instead of machinery, mechanical appliances, nuclear reactors, boilers; parts thereof (HS Code 84) and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HS Code 85) as it has taken place since the middle of 2000s, that highlighted significant shift in import from the products of heavy industry to the products of light industry.

The effect of sanctions became clearly visible in 2015, the year with the lowest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since 2004 when the total value of import declined by 40,7% in comparison with previous 2014 year.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HS Code 62) was the main commodity group impor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from the DPRK in 2015 alongside with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HS Code 03) and these two commodity groups occupied altogether 58%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In 2016

commodity group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HS Code 62) predominated in the total value of import for several previous years was pushed out to the third place with the share of 14% after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 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HS Code 87) and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HS Code 03) that occupied altogether 56% of the total value of import, still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HS Code 85) occupied 10% of import value became one of constant commodity groups in the total value of import from the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during observing period from 2004 till 2016.

Share of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HS Code 27) in the total value of expor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DPRK, 2004-2016

(thousand US Dollars)



From the other hand, in 2004-2007 the main export article from Russian Federation to the DPRK was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HS Code 27), other commodity groups didn't cover even 5% from total export value each. Since 2008 there have been some signs of changing export structure with the sharp decline of share of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In 2009 the total

value of exports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DPRK is the lowest for all reviewed period from 2004 to 2016, that reflects the consequ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7-2008 as mentioned before and in 2009 all commodity groups were affected by decline in total value export with sharpest decline in export of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export from Russia to the DPRK.

In 2011-2014 the expor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DPRK trended to be more diversified and shifting aside from predomination of only one commodity group. However, in 2014 sanctions was imposed on the Russian Federation that definitely affected bilateral trad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nd in 2015 one can see the clear negative effect of sanctions on bilateral trade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The total value of exports from Russian Federation to the DPRK declined only by 5,3% (in comparison with 2014) still the general structure of commodity groups was affected significantly,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commodity group was absolutely prevail in the total value of exports and became the Russia's primary export commodity group. The structure of export was significantly changed after the sanctions were imposed. Along with continuous decline in the total value of exports the diversification narrowed sharply to only one dominating commodity group that have occupied 84% and 85% of export in 2015 and 2016 years. From 2008 till 2014 the structure of expor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was diversified with prevail of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export group, but since 2015 the structure have came back to the situation of energy-supply domination of 2004-2007 instead of export diversification and supply of different kinds of machinery, mechanical and electromechanical appliances, vehicles, etc.

So, today especially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HS Code 27) is the main commodity group exporting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DPRK and there no signs that the situation will be changed in the mid-term.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Maersk, 네덜란드 - 러시아 항로에 아이스클래스 선박 추가 투입

- Maersk의 유럽 지역내 단거리 운송업체인 Seago Line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간 북유럽 피더 링크에 아이스클래스 선박 Volga Maersk를 추가 투입함
- Seago Line은 혹독한 추위와 얼음이 많은 북해 - 발틱해 항로상에서 아이스클래스 선박인 Vistula Maersk의 첫 번째 시험 운항에 성공함
  - Vistula Maersk는 현재 네덜란드-러시아간 피더운송에 투입중이며, 2018년 4월 20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Petrolesport, 제1 컨테이너 터미널에 처녀 입항함
  - Volga Maersk 추가투입 이후에도 Vistula Maersk의 운항은 당분간 계속됨

하역중인 Vistula Maersk

자료: 포트 테크놀리지 https://www.porttechnology.org/ (검색일: 2018년 4월 30일)

- Seago Line은 Vistula Maersk와 Volga Maersk 운항을 통해 '북유럽 피더 링크1 서비스'의 연중 안정적인 물량 유지 및 신뢰성 향상을 보장
- Vistula Maersk와 Volga Maersk는 세계 최대 아이스클래스 컨테이너 선박임
  - 겨울철 -25℃의 추운 날씨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선체 설계
  - 리퍼 플러그 600개를 장착하여 다량의 냉장화물 운송가능
  - Seago Line 단거리 서비스 상에서는 토마토, 오렌지, 감자 등 선도를 중시하는 냉장화물 운송 예정임
- Søren Castbak(Seago Line CEO)은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연중 안정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냉장화물 운송 시장에서의 리더십 위치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힘
- Seago Line은 향후 Vistula Maersk와 Volga Maersk를 Vayenga Maersk, Venta Maersk, Vuoksi Maersk, Vilnia Maersk 등의 자매 선박들과 연계하여 북해 - 발틱해상 여러 Seago Line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Maersk는 2017년에 차세대 Triple-E 선박 Moscow Maersk를 북유럽 선대에 투입한 이래, 금번 Vistula Maersk와 Volga Maersk를 Seago Line 선대에 합류시킴에 따라 러시아 시장 진출과 고객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포트 테크놀리지 https://www.porttechnology.org/ (검색일: 2018년 4월 30일)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러시아 SBI Bank, R3사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가

- 4월 13일 SBI Holdings는 SBI Bank(러시아 상업은행의 자회사)가 미국의 핀테크(Fintech)기업 R3사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함
  - SBI Bank는 러시아 시장에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TL) 플랫폼인 콜다(COLDA)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R3사는 DLT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회사로 금융거래를 기록·처리하기 위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음
  - 러시아의 SBI Bank가 참가하는 R3 컨소시엄은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 등 200개 사 이상이 참가하고 있고, 각 참가기관은 DTL을 이용한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과 무역금융의 활용을 위한 실증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 2016년 2월 SBI Holdings는 블록체인 추진실을 설치하고, 동년 3월 R3사의 컨소시엄에 참가했음
  - 2017년 5월 SBI Holdings는 자회사인 SBI Investment가 운영하는 핀테크 펀드 등을 통해 R3사에 출자하여 R3사의 외부 최대주주가 되었음
  - SBI Holdings는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콜다 어플 개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은 20개 사, 신청 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최대 30개 사에 이름

▌참고자료 : https://jp.cointelegraph.com/news/sbi-bank-in-russia-joins-r3-blochchain-consortium(검색일: 2018년 5월 2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러시아, 전문가검토위원회에서 즈베즈다(Zvezda)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

- 러시아의 국장급 전문가검토위원회(Glavgosexpertiza, General Board of State Expert Review)는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힘
  -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극동지역 개발 지원 아래, 즈베즈다 조선소는 극동러시아의 볼쇼이 카멘(Bolshoi Kamen)과 연해주 지역 조선 클러스터 내 설립된 것으로, 러시아 자국의 주요 조선 프로젝트(2015년 당시 12개) 중 하나이며 러시아 최대 규모로 건설됨
  - 이 프로젝트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조선 및 선박수리센터를 기반으로 Rosneftegaz, Rosneft 및 Gazprombank 컨소시엄에 의해 2016년부터 시작됨
  - 국장급 전문가검토회의는 2018년 1월부터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의 추가 건설에 대해 엔지니어링 조사 결과 및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확신을 가져왔음

즈베즈다 조선소 전경(현재)

자료: www.ship-technology.com 및 http://en.portnews.ru (검색일: 2018년 4월 30일)

- 현 단계 계획은 의장부두(Outfitting quay), 화물처리 부두, 볼쇼이카멘의 세관 시설 및 변전소 개장을 포함하고 있음
  - 의장부두는 402.55m 길이로 선박 진수 후 의장공사를 위한 안벽 시설이며, 총 연장

205.11m의 화물처리 부두는 해상운송된 조선용 장비 및 자재의 환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임

- 그 밖에 세관구역 시설은 화물보관용 창고, 컨테이너 적재 및 검수용 공간이 될 것임
- 또한 이번 추가 단계 프로젝트에는 기존에 6.45ha 규모의 토지에 대해 기존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도로도 함께 개발될 예정임

▪ 즈베즈다 조선소 단지는 중량물 운반 선박(heavy tonnage ships), 오프쇼어 플랫폼 부속품, 쇄빙선, 특수선박 및 기타 해양장비 생산이 가능함

▌참고자료 : http://en.portnews.ru (검색일: 2018년 4월 30일)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프리모리예-2’를 통한 일-중 간 화물운송 루트 연결

- 일본 ‘Eastern Dream’ 페리선이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예-2’의 ‘트로이츠’항(МПБТ: ≪Морской порт в бухте Троицы≫)을 경유하여 일본 사카이미나토에서 중국 창춘시까지 시범운항을 함
  - 시범운항 후 중국에서 자루비노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여 일본으로 운송함
  - 상기 화물운송은 일본 물류회사인 Nippon Express사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Eastern Dream’ 페리선에 적재된 화물 중 약 4,000톤은 한국의 ‘DBS Cruise Ferry’사의 화물임

- ‘트로이츠’항은 광범위한 화물을 환적할 수 있는 국제 범용 환적단지로 항구 내에 화물 환적을 위한 연방감독기구가 입주해 있어 모든 절차를 최소한의 장벽으로 처리가 가능함
  - ‘트로이츠’항은 지리적인 요인과 철도 인프라 등을 통해 일본과 중국 동북지역을 최단 경로로 연결함
  - 동 항만의 철도 인프라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며 항만 인프라 및 시설 등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접안 허가 및 환적 등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동 항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효율적인 운송경로를 위한 주요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는 극동러시아의 교통 잠재력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임
  - 현재 국제운송회랑의 연간 화물처리량은 약 4,500만 톤으로 화물처리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 국제운송회랑 개발은 단순한 철도 및 물류 인프라 개발이 아닌 극동항만의 증가

하는 환적화물 수용 및 처리 등과 상관 관계가 있음

▪ 현재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는 중국으로, 2017년 7월 4일 양국은 국제운송회랑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또한 동년 11월 양국은 중국교통건설(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td)를 통한 국제운송회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준비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4월 19일 러시아 측에 제출됨
-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9월에 개최될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운송회랑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15182/(검색일: 2018년 4월 28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러 연해주, 제4차 동방경제포럼 준비 한창

제4차 동방경제포럼 준비 회의

자료: www.yandex.ru(검색일: 2018년 4월 26일)

-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오는 9월에 열릴 제4차 동방경제포럼 준비에 한창임
  - 올해는 동방경제포럼의 참가자를 위해 6,500 개 이상의 호텔 객실이 확보됐다고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대행은 최근 열린 조직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발표함
  - 호텔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극동연방대에서 제공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극동연방대 총무처에 따르면, 대학 내 호텔 객실의 고객목록이 이미 모두 작성됐다고 말함
  - 또한 4,841 개 객실의 고객목록은 동방경제포럼의 운영사인 로스콘그레스(Roskongress)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함
  -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숙박시설에서는 포럼 참가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1,700 개 이상의 객실이 준비될 것이라고 연해주 정부 측은 밝힘

- 조직위원회는 포럼 참가자들의 식사 품질에 대해서도 논의함

- 현재까지 20개의 식당이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 운영 시 필요한 인증을 통과했으며, 나머지 26개 식당은 빠른 시일 내 각자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서 인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40개가 넘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맞을 계획이고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조직위로부터 공인된 식사 장소를 표시한 안내서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타라센코 주지사대행은 관계 부처에 지시함

▪ 한편 제4회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연방대학이 위치한 루스끼섬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포럼에서 특별히 강조할 주제는 인력개발임

▌참고자료 :

http://www.otvprim.ru/society/primorskij-kraj_23.03.2018_62590_bolee-6-5-tysjach-gostinichnykh-nomerov-podgotovjat-dlja-uchastnikov-vef-v-primorje.html (검색일: 2018년 4월 25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올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 '북한상품관' 개설 예정

북한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우)과 러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쿠르티코프 차관(좌)

자료: 연합뉴스(검색일: 2018년 5월 2일)

- 올해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제4차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북한 상품관이 개설될 것이라고 극동개발부 공보실이 최근 밝힘
  - 4월 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북한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은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쿠르티코프 차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상품관 개설을 제안했다고 극동개발부가 설명함
  - 쿠르티코프 차관은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북한 상품관을 개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평하며 러시아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함

- 북한 측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관련 제안서를 러시아 측에 제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힘
  -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북한 측의 제안에 따라 박 발렌틴 연해주 고려인연합회

회장과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간 협약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북한 상품관이 개설될 장소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 내에 설립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또한 모스크바와 평양에도 분관이 개설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음

▪ 북한 리광근 부상은 러시아 측에 수출 가능한 상품목록을 이미 전달했으며 상품관에는 주로 건축자재, 약품, 의료장비, 화장품, 기성복, 의류 등이 전시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 상품관에서는 연간 1회 북한 상품 및 서비스 전시회를 가질 계획임
- 앞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평양 실무방문 중 극동지역에 북한상품을 판매할 북한 상품관 개설을 제안한 바 있음

▪ 2017년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한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하여 1,500만 달러(한화 약 160억원)에 달함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15042/ (검색일: 2018년 4월 30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주요 통계

2018년 1~2월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상품명	2018.01.01. ~ 2018.2.28.		
	합계	해외	CIS
합계	**2,790,935.8**	**2,760,589.2**	**30,346.6**
동물	152.5	152.5	
육류 및 가공제품	119.8	119.8	
생선, 갑각류, 문어, 오징어 등	**328,905.2**	328,694.5	210.7
날생선 및 냉장보관 생선	0.2	0.2	
냉동생선	**201,733.7**	201,523.0	210.7
연어	3,767.7	3,767.7	
넙치	1,284.1	1,284.1	
가자미	1,530.6	1,530.6	
기타 넙치 종류	5,436.0	5,436.0	
청어	28,304.0	28,119.3	184.6
대구	12,613.1	12,613.1	
명태	**125,723.4**	125,697.3	26.1
농어	138.5	138.5	
캐비어	17,011.0	17,011.0	
생선 부산물	499.5	499.5	
생선살(생,냉장,냉동)	25,920.5	25,920.5	
훈제 생선 및 어분	106.1	106.1	
갑각류(게, 가제, 새우 등)	91,514.9	91,514.9	
게	79,440.9	79,440.9	
갑각류(조개 류)	4,440.3	4,440.3	
가리비	846.2	846.2	
낙지, 오징어 및 문어	3,076.7	3,076.7	
기타 갑각류	485.3	485.3	
갑각류 및 오징어류 제외한 식용 무척추동물	5,189.4	5,189.4	
해삼	426.7	426.7	

성게류	4,682.5	4,682.5	
유제품, 계란, 천연 꿀, 동물성 식품 등	280.0	280.0	
동물성 식품	712.1	712.1	
사슴뿔, 발굽, 녹용, 거북이 등껍질 등 관련 분말 등	686.1	686.1	
채소 및 근채류	7.4	2.5	4.9
두초류	0.0	0.0	
식용과일 및 과실 껍질, 참외	1,393.0	1,392.6	0.3
견과류	1,391.2	1,391.2	
커피, 차, 마테 파라과이 차 등	10.8	10.8	
벼	6,181.7	6,181.7	
밀 및 메슬린	1,443.4	1,443.4	
옥수수	4,609.1	4,609.1	
밀가루 및 곡류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글루텐	1,428.0	1,421.1	6.9
밀, 밀가루 및 라이밀	1,372.8	1,372.8	
밀 및 호밀을 제외한 다른 곡류의 밀가루	1.0	1.0	
그로우트, 통밀, 곡물 과립	10.6	3.7	6.9
다른 방식으로 가공된 곡류 및 배아	43.6	43.6	
씨앗 및 과일 추출기름, 기타 과일 및 곡물, 의약용 식물(마초 등)	58,328.1	58,301.1	27.0
비파조용 콩	58,264.8	58,237.8	27.0
천연 셸락, 고무, 수지, 식물 추출물	4.0	4.0	
동식물성 지방 및 오일 및 분해산물, 식용 지방, 동식물성 왁스	6,115.6	6,115.6	
콩기름	5,906.1	5,906.1	
해바라기유, 홍화유 및 면실유	128.7	128.7	
육류, 수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완제품	749.6	519.0	230.7
생선 및 캐비어 완제품 및 통조림	277.9	48.2	229.7
철갑상어 캐비어 대체품	1.6	0.7	0.9
갑각류 및 무척추 동물 완제품 및 통조림	446.6	446.6	
설탕 및 설탕제품	73.9	73.9	
감자당 및 무설탕, 자당	1.4	1.4	

카카오 및 그 제품	380.3	380.3	
초코렛 및 카카오 가공 제품	380.3	380.3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로 만든 완제품, 밀가루 과자	359.7	332.3	27.4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9.7	9.7	
제빵제과류	178.3	150.9	27.4
야채, 과일, 견과류 등 가공제품	123.5	111.0	12.6
기타 식품	419.2	325.2	94.0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식초	783.9	771.4	12.5
생수, 탄산수 및 향신료 첨가 음료	285.6	273.1	12.5
올몰트 맥주	277.2	277.2	
알코올성 음료 및 리큐어, 기타 주류	105.4	105.4	
보드카	63.2	63.2	
동물 사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19,276.2	19,276.2	
육류, 생선 및 해산물 전분 (비식용)	19,265.6	19,265.6	
담배(타바코) 및 담배 대체품	41.6	41.6	
시가	41.6	41.6	
담배	41.6	41.6	
소금, 황, 석고 재료 및 석회, 시멘트	591.6	581.5	10.1
광석, 용재 및 재	38,364.0	24,257.4	14,106.5
하소 황철석 포함한 철광석	6.0	6.0	
니켈	2,720.4	2,720.4	
납	6,008.6	6,008.6	
아연	3,094.8	3,094.8	
텅스텐	1,716.6	1,716.6	
미네랄 연료, 증류 및 석유 제품, 광랍, 버튜미너스 물질 등	**1,181,077.1**	1,180,954.9	122.2
석탄	**159,303.6**	159,224.3	79.4
역청탄	**157,646.4**	157,567.0	79.4
기타 석탄	1,657.3	1,657.3	
갈탄, 흑석을 제외한 갈탄	12,387.3	12,387.3	
이탄(peat)	180.1	180.1	
역청탄에서 추출한 원유 및 원유 제품	**238,821.8**	238,821.8	
역청탄에서 추출한 원유 제품(원유 제외)	83,984.1	83,941.2	42.8
경질유 및 그 외	549.1	549.1	
가솔린(바이오 디젤 비함유)	1,114.4	1,114.4	

케로신	386.2	386.2	
디젤 연료(바이오 디젤 비함유)	1,097.4	1,097.4	
액체 연료(바이오 디젤 비함유)	80,666.8	80,666.8	
기타 용 액체연료 (바이오 디젤 비함유, 1% 이하 황 함량)	16,705.8	16,705.8	
기타 용 액체연료 (바이오 디젤 비함유, 1% 이상, 2% 이하 황 함량)	63,961.0	63,961.0	
유류	170.3	127.4	42.8
LNG	**665,119.9**	665,119.9	
프로판	135.7	135.7	
전기	20,840.6	20,840.6	
무기화학제품	5,309.4	5,236.0	73.4
붕소 산화물 및 붕산	5,250.3	5,231.1	19.2
붕산염, 과산화붕산염	45.5		45.5
유기화학물질	236.0	236.0	
비환식알콜 및 그 제품	0.1	0.1	
제약품	42.1		42.1
혼합 및 비혼합 의약품(3002, 3005, 3006 제외)	42.1		42.1
유제 및 염색 추출물, 염료, 안료, 바니시, 잉크	22.0	22.0	
비수성 페인트 및 염료	0.1	0.1	
에센셜 오일, 향수, 화장품 및 화장실 용품	513.9	490.4	23.5
비누, 세제, 윤활제 왁스 및 청소용 왁스, 몰딩, 점토, 치약	127.7	120.4	7.3
세제, 계면 활성제(비누 제외)	12.8	11.9	1.0
프로틴, 전분, 접착제, 효소	0.2	0.2	
기타 화학제품	145.8	39.8	106.0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359.0	175.3	183.6
에틸렌 중합체	23.0	23.0	
프로필렌 중합체	5.2	5.2	
고무 및 고무제품	89.3	61.1	28.2
가죽제품, 마구, 여성용 가방 및 그 유사 제품	7.3	4.4	2.9
자연 및 인공 모피 및 모피 제품	39.9	39.9	

모피 원료 및 모피	17.8	17.8	
목재 및 목재제품 및 숯	**171,930.5**	171,930.5	
연료용 목재(통나무, 나뭇가지 등)	1,910.4	1,910.4	
침엽수 목재톱밥 및 나무부스러기	511.9	511.9	
껍질 제거 및 비제거된. 가지치기 된 비가공 목재	94,061.8	94,061.8	
침염수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61,680.9	61,680.9	
소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533.2	533.2	
가문비 나무 및 전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제외)	40,137.9	40,137.9	
침엽수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제외)	21,009.8	21,009.8	
활엽수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44034 제외)	32,380.9	32,380.9	
참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 제외)	5,571.1	5,571.1	
자작나무 비가공 목재(목재 44031제외)	15,412.4	15,412.4	
포플러 및 백양나무 목재(목재 44031 제외)	3,292.2	3,292.2	
기타 비가공 목재	8,105.2	8,105.2	
비가공 재 재목(44031 목재 제외)	7,594.4	7,594.4	
목재 및 톱밥 합판 (두께 6mm 이상)	43,527.9	43,527.9	
침엽수 목재 및 톱밥 합판 두께 6mm 이상	29,574.8	29,574.8	
열대 품종 44072를 제외한 경목 목재 및 톱밥	13,953.1	13,953.1	
오크나무 목재 톱밥 합판 6mm 두께 이상	5,569.3	5,569.3	
물푸레 나무 목재 톱밥 합판 6mm 두께 이상	4,358.5	4,358.5	
클래딩용 시트, 접착 합판(두께 6mm 미만)	28,605.1	28,605.1	
목재 합판	0.0	0.0	
플라이 우드	0.1	0.1	
부엌용 목재 액세서리 및 장식품	790.7	790.7	

기타 목제품	799.8	799.8	
목재, 재활용 종이, 판지(폐지, 폐기물)	120.1	120.1	
종이 및 판지, 그 제품	131.7	131.6	0.2
서적, 신문, 인쇄 제품, 원고 등	7.9	7.9	
면	2.6	1.9	0.6
면섬유 85% 이상, 표면 밀도 200ｇ/m2 이하 면 직물	0.6		0.6
펠트 및 부직 재료, 밧줄, 로프 및 케이블 및 그 제품	72.7	72.7	
카페트 및 기타 섬유 바닥 깔개	0.4	0.4	
이중 방직용 섬유, 기술용 섬유 제품, 코팅 섬유 등	0.5	0.0	0.4
의류 및 의류용 액세서리(니트, 뜨개질 제품 제외)	10.4	1.6	8.8
의류 및 의류용 액세서리(니트, 뜨개질 제품)	55.2	16.8	38.5
남성용 외투, 비옷, 자켓	3.7		3.7
여성용 외투, 비옷, 자켓	31.5		31.5
남성용 바지, 정장바지, 반바지 등	3.5	3.5	
여성용 정장, 치마, 바지 등	2.8		2.8
기타 섬유 완제품, 의류 및 직물 등	10.3	10.3	
신발, 게이터 및 기타 유사제품	410.0	8.9	401.1
정품 가죽 신발	363.5		363.5
우산, 양산, 지팡이, 승마용 채찍 및 부품	0.1	0.1	
석재, 석고, 시멘트, 석면 등 유사한 물질로 만든 제품	64.0	11.8	52.2
세라믹 제품	12.4	1.2	11.2
유리 및 유리제품	28.1	25.1	3.0
병, 앰플, 유리용기, 통조림용 캔	0.9		0.9
진주, 귀속 및 귀금속, 동전 등	**872,542.6**	859,151.7	13,390.9
철금속	32,708.8	32,708.8	
철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	21,748.5	21,748.5	
철강 및 비철강 반제품	10,954.4	10,954.4	

철강 및 비합금철강 압연 제품 (폭 600mm 이상), 열압연	1.8	1.8	
철강 및 비합금철강 압연 제품 (폭 600mm 이상), 클래드	0.7	0.7	
철 및 비합금 특수 모형 프로파일	3.1	3.1	
기타 합금 로드	0.3	0.3	
철금속 제품	28,010.4	27,993.1	17.4
비철 금속 파이프, 튜브 및 중공 프로파일(주철 제외)	6,021.7	6,021.7	
파이프 및 기타	123.6	123.6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	16.9	16.9	
구리 및 구리제품	61.3	55.8	5.5
구리 폐기물 및 스크랩	44.0	44.0	
비철금속 및 그 제품	9,933.5	9,926.2	7.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9,872.2	9,870.4	1.8
미가공알류미늄	9,844.0	9,844.0	
0,2 мм 두께 이상 알루미늄 플레이트, 스트립, 시트 등	0.3	0.3	
비금속 가전제품, 비금속 숟가락, 포크, 나이프 및 비금속 부품	202.6	173.3	29.3
기타 비금속 제품	4.5	2.7	1.8
기계 및 장비, 그 부품	8,493.3	7,652.6	840.6
세탁기	0.8		0.8
세탁기(가정용 및 상업용)	0.8		0.8
볼 베어링 및 롤러 베어링	3.6	3.6	0.0
전자기계 및 장비, 부품, 녹음 및 재생 장비 및 그 부품	6,080.4	5,942.5	138.0
전동기 및 발전기(전력발전기 제외)	285.6	285.6	
전기 변압기, 인덕터 및 초크, 정지형 변환 장치	17.6	16.0	1.6
배터리	22.0	20.5	1.5
음향장비 및 방송수신 장비	36.4	36.4	
전선, 광섬유 케이블(동축 케이블 포함), 케이블	1,018.9	1,018.1	0.9
전동차량 및 철도 기관차량 및 부품, 선로 장비	128.9	117.1	11.8
철도용 및 트램 차량, 비표준화물 마	11.8		11.8

차			
철도 및 트램 제외 육로 운송수단의 부품 및 부속품	77.4	72.2	5.2
8701-8705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77.2	72.0	5.2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품	637.4	637.4	
선박 및 부유 구조물	3,993.6	3,993.6	
크루즈선, 관광용, 페리, 화물 및 바지선	3,989.1	3,989.1	
광학 사진 및 영화 촬영 장비, (정밀) 의료기기 및 장치, 부품 및 액세서리	1,831.9	1,823.6	8.3
악기 및 부품	1.6	1.6	
가구, 침구, 가구 부속품, 램프 및 조명장비, 조립식 가구	107.2	73.1	34.1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부품 및 악세서리	39.0	27.3	11.7
기타 완제품	2.2	0.6	1.6
예술작품, 수집품 및 골동품	68.1	68.1	

자료: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검색일: 2018년 5월 2일)

부 록

제8차 한러 극동포럼

- 추진 배경과 목적
  - 제3차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한 후속 아젠다 발굴
  - 대통령 제안 '9 브릿지' 제안의 분야별 구체화 및 제4차 포럼 대비
  - 한-극동러 지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 및 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협력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한 우리 기업의 극동 진출 지원

  * 극동지역에서 실질협력 가능성이 높은 수산가공, 조선 분야 등을 중점 논의
- 주제 : 한-러 극동지역 실질협력: 새로운 기회와 도전
- 일시/ 장소 : 2018. 5. 16(수), 08:30~17:30, 현대호텔(블라디보스토크)
- 공동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 후원 :
  - (러) 극동개발부, 연해주 주정부, 극동개발기금, 극동투자수출지원청
  - (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조선기자재협회
- 참가 대상 :
  - (수산·어선건조) 수산, 어선건조, 중고선박, 양식, 수산가공

- (현지 투자) 산업단지 개발, 선도개발구역 투자 등
- (물류·NSR) 물류사업 및 극동러 프로젝트(에너지 포함) 참여 희망 및 관심 기업 등

▪ 참석자 :

- (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세원마르스, CJ대한통운, 한국통산 등 민간기업
- (러) 극동개발부, 연해주정부, 극동개발기금,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등 러 공공기관 및 러 민간기업

▪ 신청 기한 : 2018년 5월 11일(금)까지

▪ 신청 방법 :

- 별첨 신청서를 아래 문의 및 접수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참고사항: 차량제공, 호텔 예약 대행 및 오만찬 간담회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지원하며, 숙박 및 항공은 업체 개별부담임

▪ 문의 및 접수처

- KMI 국제물류연구실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umjikim@kmi.re.kr)
- KMI 국제물류연구실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kdong@kmi.re.kr)

▪ 세부 프로그램 :

구 분	주요 내용	
08:30~09:0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식	**한-러 극동지역 실질협력 : 새로운 기회와 도전 (사회: 신수용 박사, KMI)**	
09:00~09:25	**개회사**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 사	(러측)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축 사	(한측) 이인용 국회 사무차장
	환영사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09:25~09:55	**기조 연설**	극동 투자 잠재력과 개발 방향 (**쉐브초프** 부총리실 연해주 대표)
		한-러 경제협력 비전과 추진전략 (**이승원** 북방경제협력위 부단장)
09:55~10:00	**사진 촬영**	
Session Ⅰ	**극동 개발 : 극동 개발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 방안**	
10:00~11:30 **좌장: 김동주 국토연 원장**	주제 발표	1. 러시아 극동개발의 추진 성과와 계획(**페투호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 극동러 개발 전망과 과제(성원용 교수, 인천대)
		3. 선도개발구 및 자유항 해외투자사례와 시사점(**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4. 극동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방안(이현주 박사, 국토연)
	토론	한: 정진규 연구위원(국토연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황진회(본부장, KMI) 러: **스코릭**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입주기업 지원협회 회장, **자오스트롭프스키** 러 과학아카데미(RAS) 극동분원 선임연구원
Session Ⅱ	**수산·어선건조 : 극동러 수산 현대화와 협력 방안**	
11:30~13:00 **좌장: 레루힌 극동수산거래소 사장**	주제 발표	1. 극동러 수산가공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과제 (**마로요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극동 대표)
		2. 수산가공물류단지 중심의 한러 수산협력 과제(권기현 부장, 한국통산)
		3. 연해주 양식장 투자 사례와 한러 협력 가능성(**나스타프쉐프** 연해주 수산국장)
		4. 어선 건조·수리 분야 한국의 참여 방안(김학기 박사, 산업연구원)
	토론	한: 성기석 부장(CJ대한통운) 러: **갈리트순** 캄차카 어업부 차관, **비사이토프** 사우스터미널사 사장
13:00~14:00		**오찬**
Session Ⅲ	**북극항로·물류 : 북극항로와 복합운송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14:00~15:30 **좌장: 양창호 KMI 원장**	주제 발표	1. 극동러에서의 북극항로 활성화 성과와 과제(**오가이** 총장,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2. NSR 연계 비즈니스 모델(조지성 박사, KMI)
		3. 극동러 TSR 활용 복합운송 활성화 현황과 계획(러)
		4. 극동러 복합운송에서의 화차 문제와 한러간 협력방안(한창윤 세원마르스)
	토론	한: 전명수 블라디보스토크경제대학 객원교수. 러: **바클라노프 태평양지리연구소** 부문장, **라린 아태연구센터** 소장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Ⅳ	**에너지 : 극동러 지역 한러 석유가스 협력 방안**	
15:50~17:20 **좌장: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 교수**	주제 발표	1. 극동러 지역 LNG 공급분야 투자동향(**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2.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전망과 한러협력 가능성(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 위원)

	토론	한: 이상준 교수(국민대), 강태호 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장) 러: 사할린 주정부, 연해주 에너지부
17:20~17:30		**마무리(이성우 본부장)**

* 세미나 주제 및 발표기관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션별로 발표이후 양 국가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